

초보자도 척척 구축할 수 있는 편리성 제공

지난호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론트페이지를 비롯한 홈페이지 제작물을 이용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호에는 최근 새로운 모습으로 발표된 넷스케이프 4.0 커뮤니케이터의 컴포저(Composer) 홈페이지 제작 툴을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황희정 / 넥스텔 멀티미디어연구소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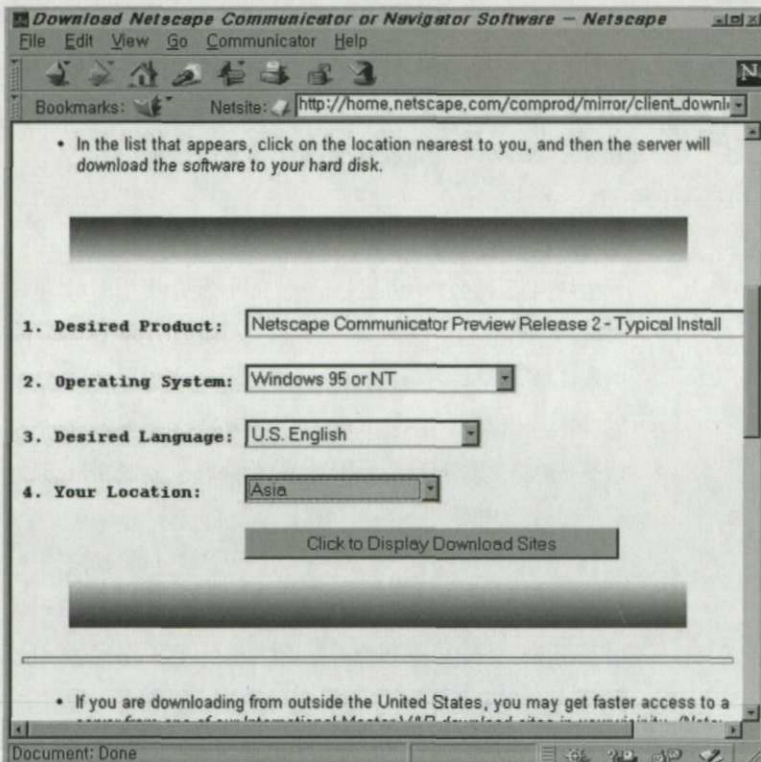
최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와 넷스케이프사는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더욱 뜨겁게 격돌하고 있다. 이들은 각기 자사 제품의 장점을 내세우며 서로의 사용자층을 넓혀가

고 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3.0의 수정판인 3.1을 배포중이고, 넷스케이프사는 4.0버전의 베타2 버전을 배포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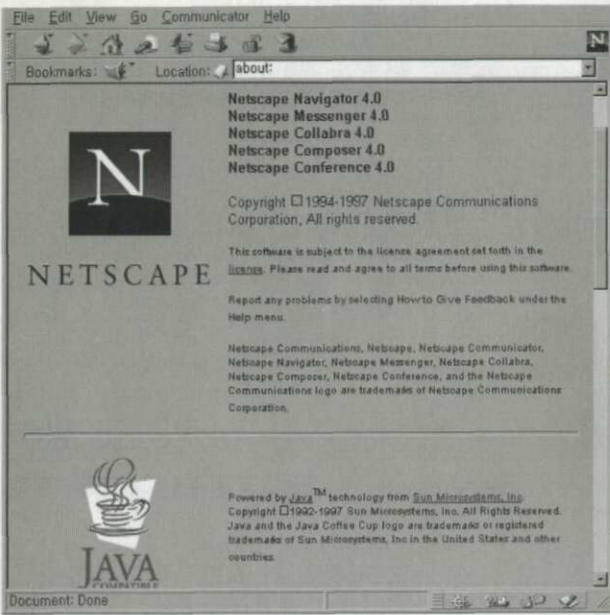
넷스케이프 4.0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단순한 브라우저의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더욱 향상된 메일 및 뉴스리더, 홈페이지 제작툴, 개인 및 그룹의 일정관리 기능을 가진 캘린더 프로그램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컴포저(Composer)는 상용제품인 프론트페이지보다 기능이 적기는 하지만 상당히 편리하고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인터넷 초보자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너무 많이 바뀌어 다소 혼란을 준다는 지적도 있으나, 사용편리를 위해 바뀐 것이므로 이내 적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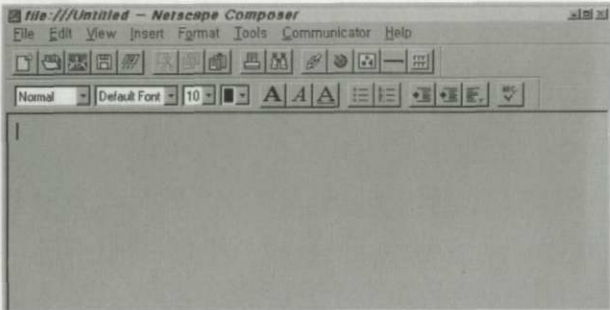
넷스케이프 4.0 베타2 버전은 <http://www.netscape.com>에서 현재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넷스케이프 4.0 베타2를 다운로드하는 화면



▲ 넷스케이프 4.0 화면



▲ 넷스케이프 컴포저 화면

프로그램의 설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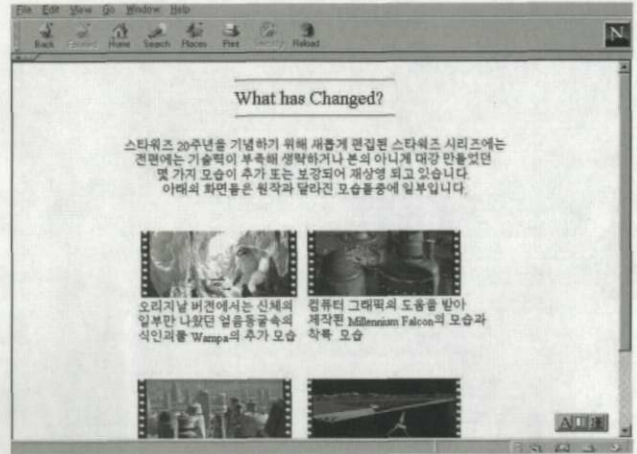
먼저 <http://www.netscape.com>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도록 한다.

다운받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설치된다.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때문에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설치가 종료되면 가능하면 시스템을 다시 부팅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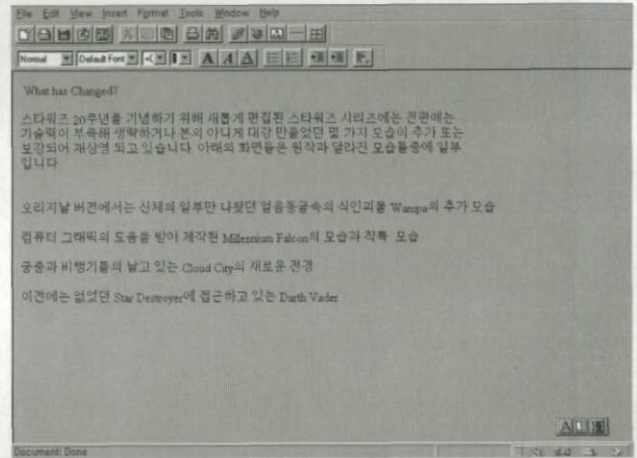
컴포저 기초

얼핏보기에 다른 홈페이지 제작툴과 비슷하게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기본적인 사용방법은 일반적인 워드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원하는 위치에 글을 입력하고 블록을 지정한 뒤 글자 크기를 조정하거나, 색상을 변경하는 등의 일련의 작업이 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새로 개봉한 영화의 홍보 웹 페이지



〈그림 1〉 홈 페이지 최종 작업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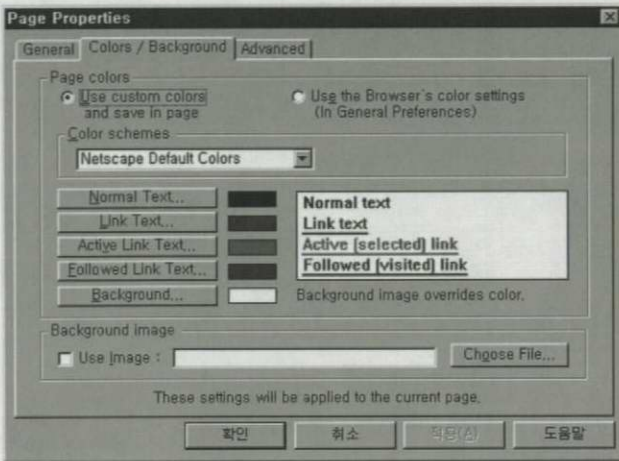
〈그림 2〉 새로운 웹 페이지에 텍스트를 넣은 화면

를 그대로 구성해 보는 것으로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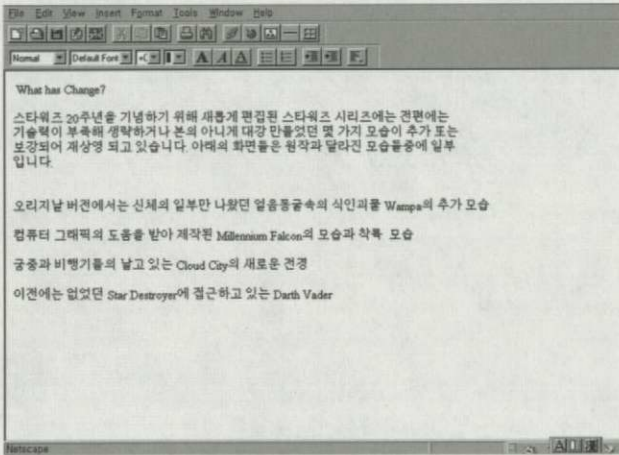
〈그림 1〉은 작업한 홈페이지의 최종 작업 화면이다. 기존에 페이지들이 단순히 일렬로 그림과 텍스트를 나열했다면 이 페이지는 HTML tag 중에 table tag를 사용하여 다단 편집을 해보았다. 테이블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조금 혼돈될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테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텍스트에서 그림을 삽입하고 마지막으로 테이블을 이용하여 화면을 분할하도록 하겠다.

먼저 넷스케이프 컴포저를 실행시키기 바란다. 윈도우 95사용자라면 시작 메뉴에서 넷스케이프 폴더를 선택해 열 수 있으며, 또다른 방법으로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 4.0을 실행시킨 후 윈도우 메뉴에서 컴포저를 선택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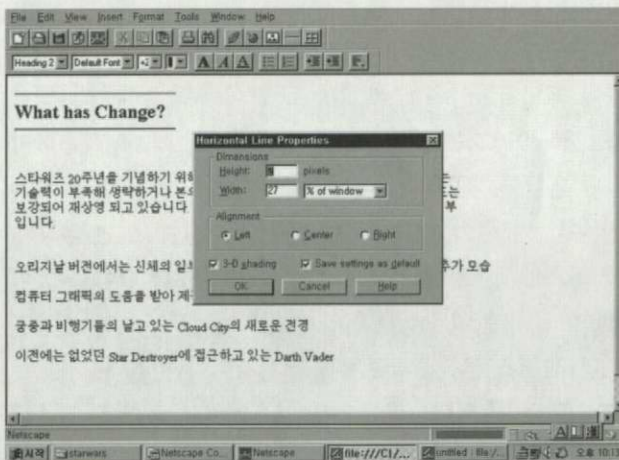
새로운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라



〈그림 3〉 텍스트와 화면 배경색을 지정하는 화면. 그 결과값을 윈도우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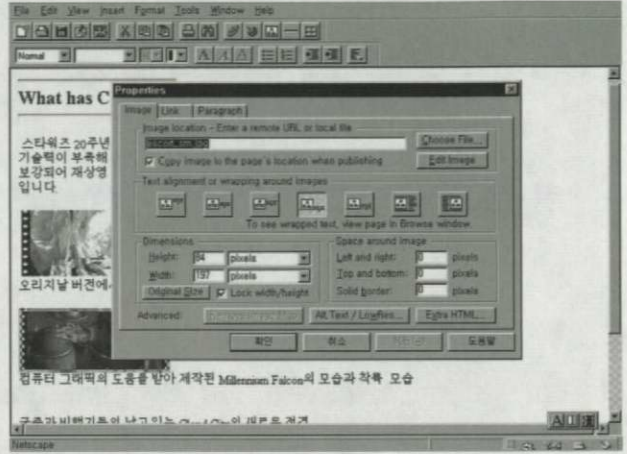


〈그림 4〉 글자의 크기와 색을 조정하는 화면



〈그림 5〉 선을 지정하는 화면

고 묻는 윈도우가 새로 열린다. 이때 'From Template'를 선택하면 넷스케이프 서버에 접속되는 NETSCAPE에서



〈그림 6〉 Insert)image를 선택하면 그림과 텍스트의 정렬 그림 여백크기를 지정하는 화면이 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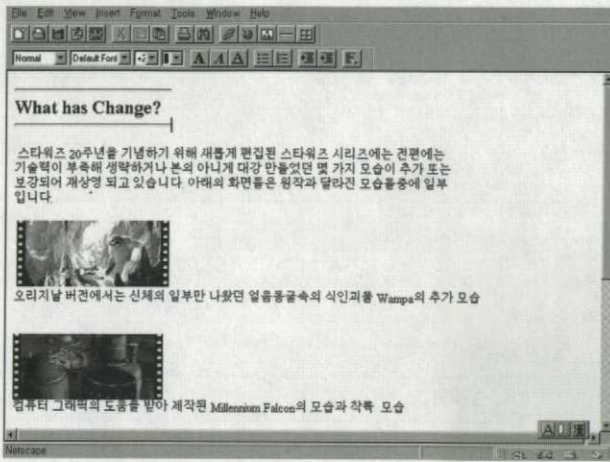
제공하는 기본적인 템플릿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Blank Page'를 선택하여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들자.

〈그림 2〉는 새로운 웹 페이지에 기본 텍스트를 넣은 것이다. 현재까지는 화면 레이아웃도 없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지정하지 않아 페이지는 회색으로 보인다. 먼저 페이지 백그라운드를 하얀 색으로 바꾸기로 하자. 메뉴 중에 format > background image and color를 선택한다.

〈그림 3〉이 윈도우 내에서는 일반 텍스트와 화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결과값은 윈도우 안에 조그마한 칸에서 미리 보여준다. 현재 세팅은 일반 텍스트는 검정색, 링크되는 곳은 파란색, 한번 갔다온 링크(vlink)는 보라색으로, 링크된 곳을 마우스로 클릭할 때 변하는 것(alink)은 빨간색으로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으로 변경했다.

〈그림4〉, 〈그림 5〉에서는 본문과 제목을 구별할 수 있도록 글자의 크기와 색을 조정하였으며, 적당한 크기의 선을 넣어 강조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웹에서 제목에 해당되는 것은 무조건 화려한 그래픽으로 넣었으나 요즘에는 속도와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일반 텍스트를 사용하되 변형을 주는 추세로 많이 바뀌었다.

글자의 색과 크기는 작업 메뉴에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일반 텍스트보다 크기를 두배 키웠고, 컬러는 편집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dark blue를 선택했다. 글자 위아래에 입체적으로 보이는 선은 HTML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hr>태그를 사용했다.



<그림 7> 그림이 모두 삽입된 모습

선의 기본값은 화면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원하는 길이 만큼만 선을 그어주려면 화면과 같이 좌우정렬값과 길이를 조정해주어야 한다. 길이는 윈도우 크기의 %로 지정할 수 있으며, 픽셀 단위로 지정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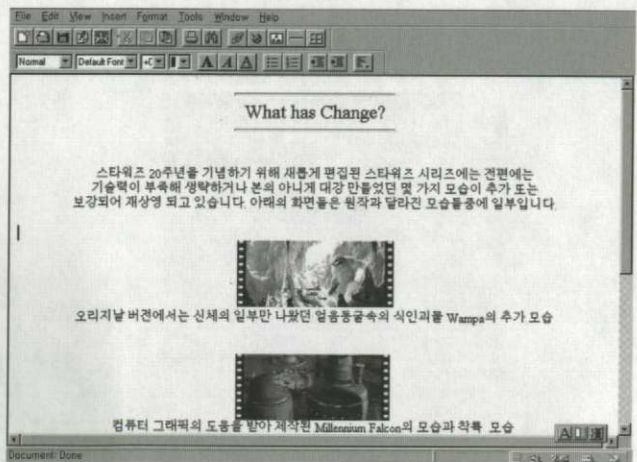
그럼 본문의 설명말 앞에 그래픽을 삽입하도록 하자. <그림 6>메뉴의 Insert > image를 선택하면 윈도우가 하나 새로 뜨는데 여기에서는 그림이 있는 경로 및 그림과 텍스트의 정렬과 그림의 여백 크기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때 기능 단추 중에 Alt. Text 기능에 그림의 이름을 넣어주면 웹페이지에서 마우스가 그림 위로 오버랩 될 경우 윈도우의 풍선 도움말처럼 설명문이 뜬다(이는 넷스케이프 4.0 이상과 MS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만 지원한다).

<그림 7>은 그림이 모두 삽입된 모습이다. 이제 그림과 텍스트는 모두 들어갔다. 화면의 레이아웃만 꾸미는 것이 남아있다. 나중에 백그라운드에 영화 필름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글자와 그림이 겹쳐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화면에 요소를 페이지의 중앙에 정렬하기로 하자.

텍스트와 그래픽의 중앙 정렬은 워드프로세서와 사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리라 본다.

이제까지는 어려움없이 쉽게 넘어갔으리라 본다. 하지만 HTML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웹에서는 일반 워드프로세서와는 달리 다단편집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확장된 HTML 문법에는 단을 나누도록 도와주는 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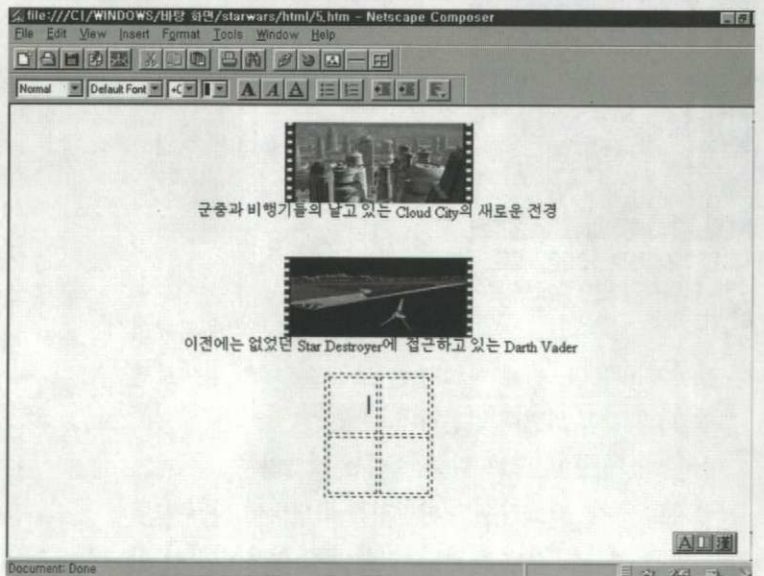


<그림 8> 웹에서 다단편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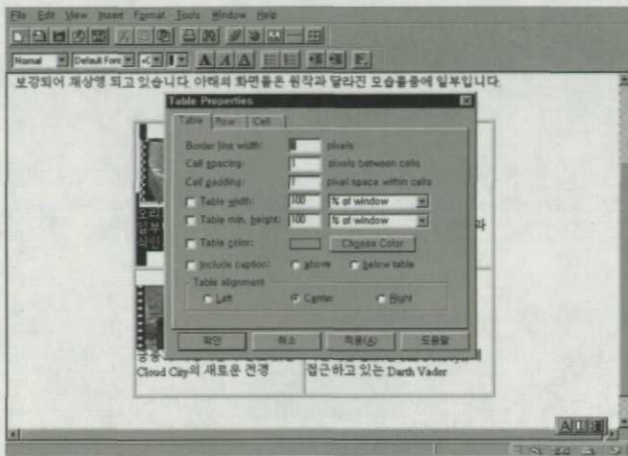
가 새로 추가되었으나 복잡한 레이아웃을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여기서는 사용법도 익히는 차원에서 테이블을 사용하겠다. 테이블을 사용할 때는 빈 테이블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미리 만들어진 것을 각 셀에 카피하여 넣는 방법도 있지만, 후자의 방법을 이용하자. 본문이 끝나는 곳에 테이블을 하나 추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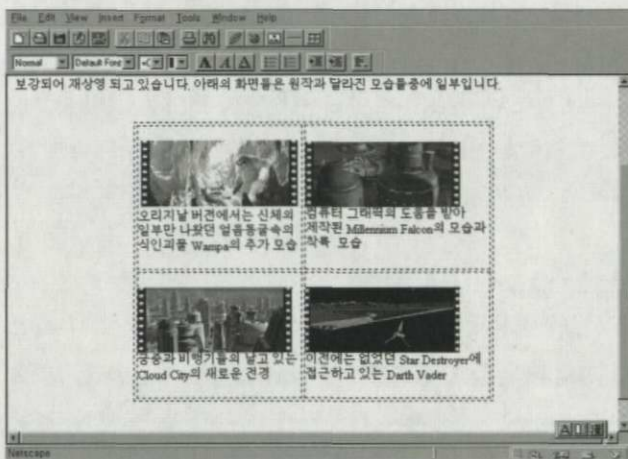
<그림 9>는 4개의 셀을 만들어서 하나하나에 앞서 작업한 그림과 글을 환경설정에서 border line width를 0으로 주면 table은 존재하되 테두리가 보이지 않는 형태가 된다. 그 이외에 cellspacing은 셀과 셀 사이 라인의 굵기, cellpadding은 셀안에 경계선과 내용물의 빈공간을 넣을 때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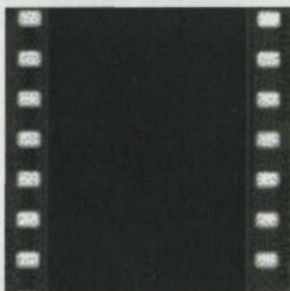
<그림 9> 테이블의 테두리 감추기



〈그림 10〉 테이블 행과 열의 간격을 조정하는 화면



〈그림 11〉 4가지 요소가 각 셀안에 들어간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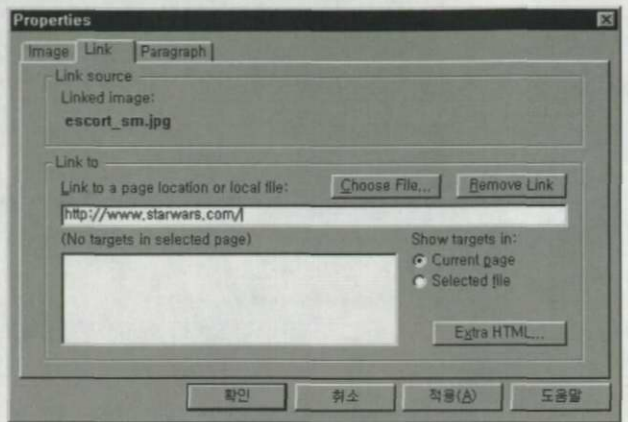
〈그림 12〉 가로 1300, 세로 150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화면

〈그림 10〉 화면에서 설정한 값들이 클수록 두개의 목록 사이의 간격이 벌어진다.

〈그림 11〉은 4가지 요소가 각 셀안에 들어간 형태이다. 테이블의 경계값을 보이지 않게 해주면 화면과 같이 파란 점선으로 나타나는데, 이 선들은 웹 브라우저에서

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 화면을 브라우저에서 열어보면 〈그림 1〉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 필름 형태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기로 하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화면상에 다른 그림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보통 화면상의 그림이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에 비해 백그라운드 이미지



〈그림 13〉 링크되는 곳의 URL 넣기

는 마치 목록탕에 붙은 타일처럼 똑같은 모양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픽 로딩하는데 적은 시간이 걸린다.

〈그림 12〉를 예로 들면 가로 1300, 세로 150의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붙어 있다. 만일 모니터의 가로가 1300픽셀 이상을 볼 수 있다면 사용자는 왼쪽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도 필름 모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제작할 때에는 가로는 충분히 넓게 만들고 세로는 되도록 짧게 만드는 것이 효과가 좋다.

이제 화면 레이아웃을 모두 마쳤다. 여기서 작업이 끝났다면 지면상에 작업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웹에서는 종이에서 되지 않는 하이퍼링크를 넣을 수 있다. 화면상에 있는 각 그림들을 클릭하면 자세한 설명이 있는 화면으로 점프되는 링크를 제작하기로 하자. 링크되는 그림이나 텍스트를 선택하고 링크 추가 기능을 선택하면 〈그림 13〉이 나타난다.

여기서 〈그림 13〉과 같이 링크되는 곳의 URL을 넣어 주면 된다. 만일 링크되는 파일이 하드에 저장되어 있다면 Choose File 기능을 선택하여 링크시켜도 된다. 이상과 같이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에 내장된 컴포저를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았다.

이 컴포저는 넷스케이프 브라우저와 가장 잘 궁합이 맞으며, 가격 또한 저렴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텍스트의 디코딩을 잘못해서 정성껏 입력한 한글의 소스를 보면 모두 특수한 코드값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고 텍스트 입력과 변경시 불편하다. 한글 문제만 완벽하게 해결된다면 보다 많은 사랑을 받으리라 생각한다. **DC**